

CR 2008 - 03

FY2008 수입보험료 전망

2008. 8

보 험 연 구 원

CR 2008 - 03

CEO
Report

FY2008 수입보험료 전망

2008. 8

동향분석실

보 험 연 구 원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,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< 목 차 >

I. 머리말	1
II. 경제·금융 환경	2
1. 실물 경제 환경	2
2. 금융 시장 환경	4
III. 수입보험료 전망	7
1. 주요 지표	7
2. 생명 보험	9
3. 손해 보험	15
IV. 시사점	23

I. 머리말

- 최근 국내외 경제·금융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3년간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유지해 온 보험산업도 향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음.
-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- 보험산업의 경우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변액보험의 성장률 둔화,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, 경기침체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한 보험구매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음.
- 2008년 상반기의 악화된 경제·금융 대외여건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외 경제·금융 환경의 변화를 진단 및 전망해 보고, 경제상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.
- 이 보고서는 2007년 11월에 발간된 『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』를 최근의 경제·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시장의 규모, 즉 수입보험료를 중심으로 보완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.
- II장에서 경제·금융 시장의 환경 변화를, 그리고 III장에서는 보험산업 전체의 흐름과 종목별 특징에 대해서 최근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, IV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함.

II. 경제·금융 환경

- 2008년 경제·금융환경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
-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둔화 국면과 금리 상승추세 및 주식시장 침체라는 경제·금융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.

1. 실물 경제 환경

- 2008년 세계경제는 공통적으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, 국제금융시장 불안, 물가상승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2007년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OECD는 2008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1.8%, 미국은 1.2%, 유로지역은 1.9%로 하향 수정 전망하였고 IMF는 중국의 성장률을 9.3%로 하향 수정 전망
- 2008년 국내경제는 수출을 제외한 민간소비, 설비투자, 건설투자 모두가 최근 2~3년간의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실질 GDP 증가율은 4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하반기 민간소비는 1/4분기의 3.4%보다 더욱 감소하여 2008년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4.5%보다 크게 감소한 3.2%가 될 것으로 전망
 - 민간소비의 회복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하락, 주식가격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자산효과, 유동성 조절목적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채부담 가중으로 더딜 것으로 전망
- 건설투자는 2007년보다 소폭 증가한 1.8%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

상되며 설비투자는 국산 및 수입자본재 설비투자의 감소로 2007년의 7.6%보다 크게 감소한 3.8%수준의 저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

-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들인 국내기계수주의 하락(4/4분기 30.0%→5월 -1.1%)과, 기계류수입의 하락(4/4분기 30.6%→5월 5.7%)을 볼 때 설비투자는 2007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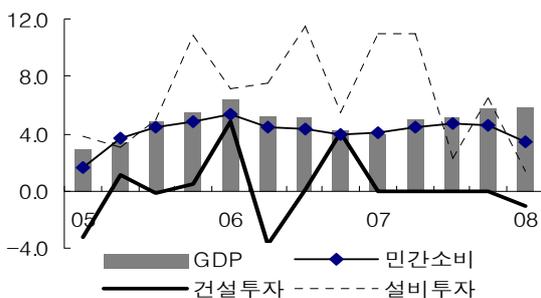
○ 2008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- 수출은 대외 수출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수출지역 다변화와 선박·무선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로 두 자리 수자인 18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수입은 원유·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5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○ 소비자물가는 2.5%를 기록한 2007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4.6%에 이를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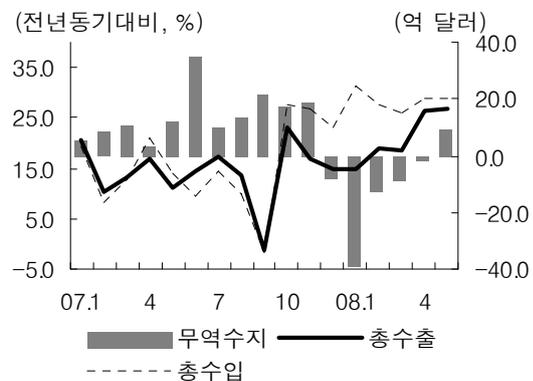
-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4.3%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,
- 하반기에는 수입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에 대한 원화의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임.

<그림 1> 부문별 성장률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 2> 수출 수입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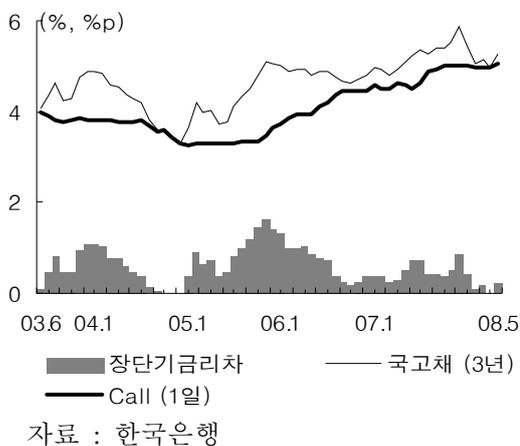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관세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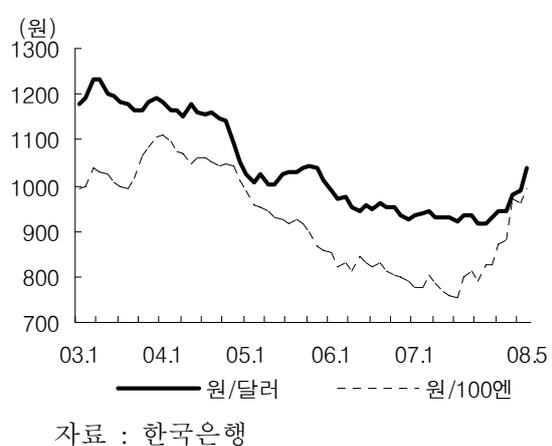
2. 금융 시장 환경

- 하반기 기준금리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의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원/달러 환율 상승추세는 안정화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
- 시중유동성의 빠른 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의 인상이 예상되지만 큰 폭의 인상은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
 -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2007년 1/4분기 1.3조에서 2008년 1/4분기 2.7조로 증가함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외환당국이 환율시장 개입을 표명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은 변동 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
 -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공급의 위축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, 외국인 주식매도 증가로 인한 달러수요의 증가로 인해 빠른 환율 하향추세 전환은 힘들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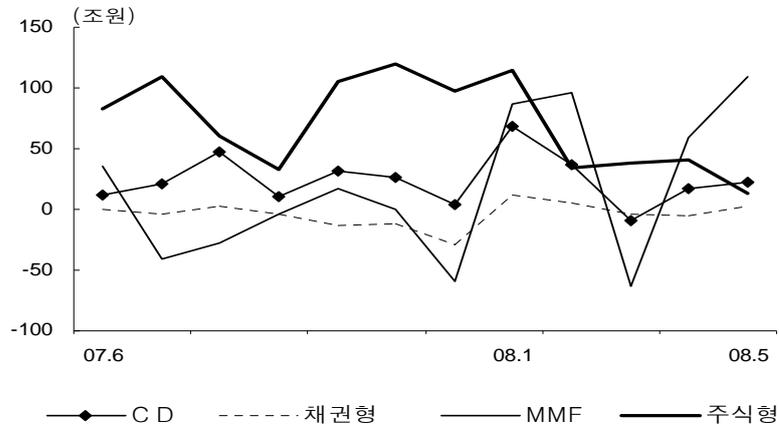
<그림 3>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



<그림 4> 원화 환율 추이



<그림 5> 금융상품별 자금 유출입 현황



자료 : 한국은행

- 주식시장의 혼조세로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호가 하락되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 상승은 시장의 실질금리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중자금은 단기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- 시중자금은 실세총예금에서 이탈하여 단기 고수익보장이 가능한 양도성예금 및 MMF 등 단기성 대기자금으로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2008년 국내경제는 경기하강 징후와 물가상승 예상이 가계소비심리를 위축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불안정은 보험시장의 경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
- 투자의 급격한 감소세는 특종, 화재, 해상 등 관련 상품에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, 두 자리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출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
- 주가 하락에 의한 마이너스자산 효과,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및 시중자금 단기화는 장기상품인 보험수요에 불리하게 작용

- 특히 주식시장 불안정 및 주가의 하향 수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눈에 띄는 변액보험의 성장세에 변화가 예상

<표 1> 2008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

(전년동기대비 %)

경제지표	2005	2006	2007	2008(F)
실질GDP	4.2	5.1	5.0	4.3(5.2)
(경상GDP)	4.0	4.6	6.3	9.1(7.3)
민간소비	3.6	4.5	4.5	3.2(5.0)
건설투자	-0.2	-0.1	1.2	1.8(4.7)
설비투자	5.7	7.8	7.6	3.8(6.8)
재화수출	9.7	12.4	12.0	10.8(7.5)
재화수입	6.4	11.2	10.9	10.2(7.4)
경상수지규모(US\$억)	149.8	53.8	59.5	-105(18.3)
상품수지규모(US\$억)	326.8	279.0	294.0	85(242.0)
수출(통관)	12.0	14.4	14.1	18.0(10.8)
수입(통관)	16.4	18.4	15.3	25.5(11.8)
소비자물가(연평균)	2.8	2.2	2.5	4.6(2.9)
국고채(3년)	4.27	4.83	5.23	5.9(5.5)
원/달러(연평균, 평잔)	1,024.3	955.5	929.2	1,050.0(905.0)
실업률	3.7	3.5	3.2	3.2(3.2)

주 : 2008(F)는 보험연구원의 수정전망이며, ()는 2007년 11월 현재의 초기전망임.

Ⅲ. 수입보험료 전망

1. 주요 지표

-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최근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성장하여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, 특히 FY2007에는 13.6% 성장
- FY2007에는 주식시장 호황과 노후대비 수요의 확대로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대폭 성장
- 또한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건강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 고성장을 하였으며, 외제차와 중대형차의 보급 확대 등 차량고급화와 보험료 조정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도 증가

<표 2>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조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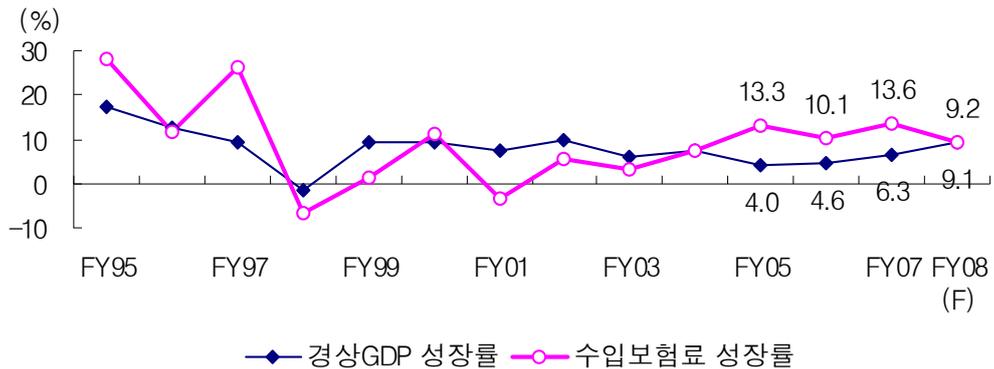
구 분	FY2001	FY2002	FY2003	FY2004	FY2005	FY2006	FY2007	FY2008(F)
생명보험	47.4 (-8.3)	49.1 (3.6)	50.4 (2.7)	53.7 (6.6)	61.5 (13.5)	66.5 (8.1)	75.1 (13.0)	81.2 (8.1)
손해보험	18.7 (10.9)	20.6 (10.3)	21.4 (3.7)	23.2 (8.6)	25.7 (10.8)	29.6 (15.0)	34.0 (14.9)	37.9 (11.6)
전 체	66.1 (-3.6)	69.7 (5.5)	71.8 (3.0)	76.9 (7.2)	87.2 (13.3)	96.0 (10.1)	109.1 (13.6)	119.1 (9.2)

주 : ()는 억원 단위 성장률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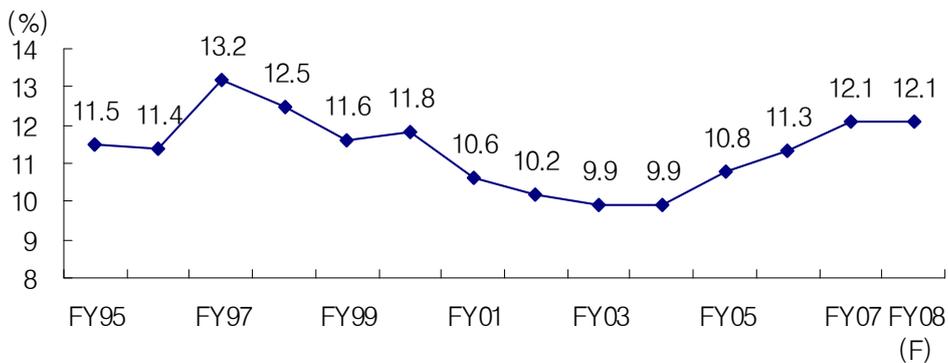
- FY2008 보험산업은 악화된 경제·금융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, 보험기간이 장기이며 의무보험 성격을 가진 다수 보험종목의 특성상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급격한 하락 없이 9%대에 머무를 전망

- 특히 주식시장의 침체로 변액보험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며, 시중금리 인상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매력도 감소
- 또한 고유가로 인한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속도 둔화로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도 성장 둔화 예상
- FY2008 보험침투도(insurance penetration)는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과 유사해짐에 따라 12.1%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
<그림 6> 경상GDP 성장률 및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



<그림 7> 보험침투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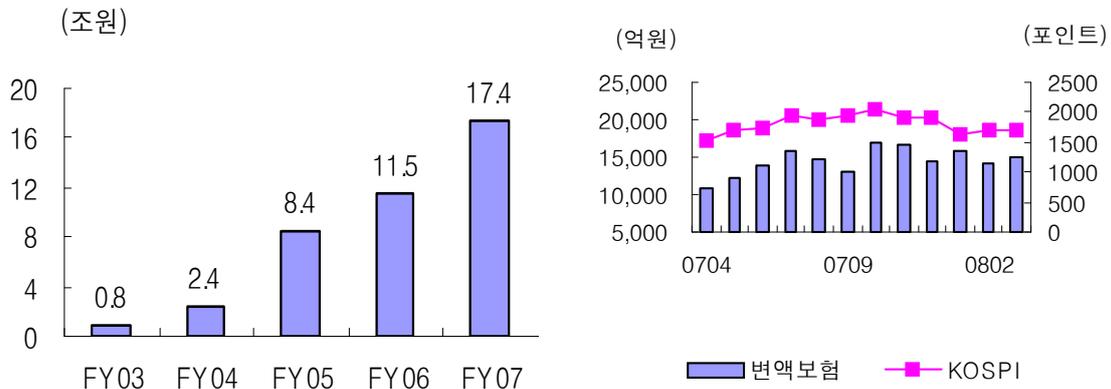
주 :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/경상GDP임.

2. 생명보험

<FY2007 수입보험료 현황>

- FY200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증시호황에 따른 변액보험상품 판매증가와 단체보험 실적개선 등의 영향으로 FY2006에 비해 4.9%p 증가한 13.0%의 성장률을 나타냄.

<그림 8>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<그림 9> 최근 KOSPI와 변액보험 추이



- FY2007 특별계정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50.9% 성장하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,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상품의 판매 호조로 생존보험,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이 두드러졌음.
- FY200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가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FY2007 9.7%의 성장률을 기록함.
 - 일반단체보험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-5.4% 성장하며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갔으나,
 - 2005년 12월부터 판매된 퇴직연금이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

치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등과 맞물려 크게 성장하면서 단체보험 상품 성장을 견인함.

<그림 10>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<표 3> FY2008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 원, %)

보험종목	FY2006		FY2007		FY2008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개인보험	598,999	9.4	679,058	13.4(13.7)	728,088	7.2(9.4)
- 생존	180,587	13.4	223,900	24.0(23.4)	247,587	10.6(15.9)
- 사망	294,199	5.6	306,813	4.3(5.3)	319,322	4.1(5.0)
- 생사혼합	124,213	13.2	148,345	19.4(19.7)	161,178	8.7(8.9)
단체보험	65,550	-2.5	71,898	9.7(4.0)	84,009	16.8(4.4)
- 일반단체	12,379	-12.3	11,712	-5.4	10,857	-7.3(-)
- 퇴직보험	49,472	-6.8	49,606	0.3	50,201	1.2(-)
- 퇴직연금	3,700	-	10,580	186.0	22,951	116.9(-)
합 계	664,549	8.1	750,956	13.0(12.8)	812,096	8.1(8.9)

주 : 1) ()안은 2007년 11월 현재 보험연구원의 추정·전망치임.

2)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되었음.

3) 기존에는 단체보험 전체만을 전망하였으나 금번 수정전망부터는 분리 전망함.

<FY2008 종목별 성장률 전망>

- FY2008에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FY2007(13.0%) 보다 낮은 8%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보험료 규모는 8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2007년 증시는 1,400 포인트대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상승하면서 10월 경 2,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경기둔화 우려로 2008년 3월 1,5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함.
 -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주가지수 상승과 맥을 같이하여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 10월 이후 주가지수가 조정을 나타내면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도 정체됨.
- 개인보험은 변액보험 성장 둔화에 따라 FY2007(13.4%) 보다 낮은 7%대의 성장이 예상됨.
- FY2008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성장세가 소폭 회복되겠지만, 암보험 등 질병보험 성장률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둔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FY2007(4.3%) 보다 낮은 4.1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.
 - 종신보험은 FY2005 -1.9%, FY2006 1.5% 성장하는 등 최근 성장률 정체를 겪어왔으나, 일부 대형사의 마케팅 강화 효과로 FY2007 6.3% 성장하며 성장성이 소폭 회복되고 있음.
 - 질병보험의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(FY2005 10.4% → FY2006 7.5% → FY2007 2.2%)이나, 2008년 5월부터 일부 생보사들이 개인형 실손의료비보장보험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성장세가

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그러나 2008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저축성보험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, 즉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수요도 일부 위축될 것이라 판단됨.
- FY2008 생존보험은 전년도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성장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(24.0%)에 비해 낮아진 10.6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- 생존보험 중 변액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.6%로, 주식시장 상황변화에 따른 변액보험 상품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는 생존보험 전체의 성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.
- FY2008 생사혼합보험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변액유니버설 보험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감소한 8.7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.
 - FY2007 변액유니버설보험은 46.2% (FY2006 51.6%) 성장하여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불안정한 주식시장으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음.
 - 기타 저축성 보험은 FY2007 -2.8% 성장하며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갔으며 FY2008에도 뚜렷한 성장요인이 없고 시중금리 상승 등의 악재로 인해 지속적인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.
- FY2008 단체보험은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에 따라 전년에 이어 퇴직연금 가입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7.1%p 높은 16.8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
변액보험시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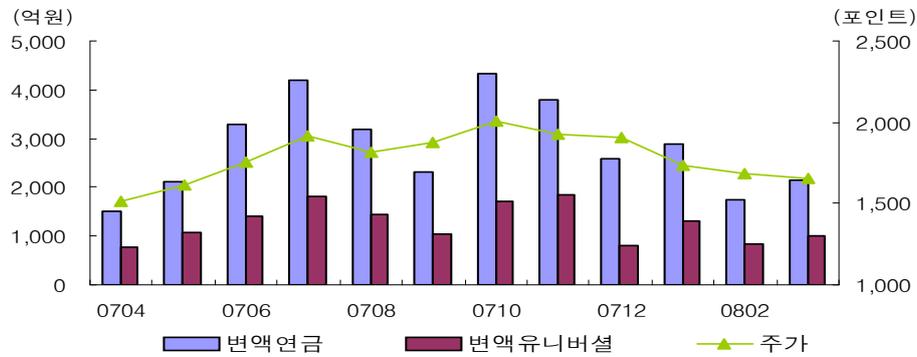
- FY2007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9.5조원으로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26.7%를 점하고 있으며, FY2008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에서도 변액보험의 성장세 유지여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<표 4>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및 수입보험료 비중

변 액 보 험				개인보험 전체		
보험종목	초 회 보험료	수 입 보험료	초회 비중	보험종목	수 입 보험료	변액보험 비중
변액종신	125	7,635	1.6%	사망보험	319,322	2.4%
변액 유니버셜	16,408	96,353	17.0%	생사혼합	161,178	59.8%
변액연금	35,927	90,580	39.7%	생존보험	247,587	36.6%
합 계	52,461	194,569	27.0%	합 계	728,087	26.7%

-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7 각각 63.6%, 46.2% 성장하며 변액보험부문의 급성장을 이끌어 왔음.
 - FY2007 변액보험 부문의 이러한 급성장은 주식시장 흐름과 상당히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경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
 -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다른 변액보험상품 보다 높아 주가의 변동성이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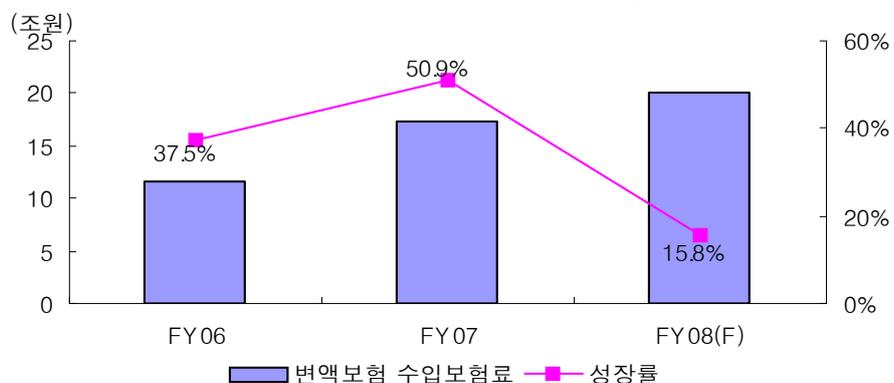
<그림 11> 월별 주가지수와 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설 초회보험료 추이



□ FY2008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FY2006 (37.5%), FY2007 (50.9%)에 비해 큰 폭 감소한 15.8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
-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변액보험은 해약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, 펀드유형을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전년도에 급성장한 신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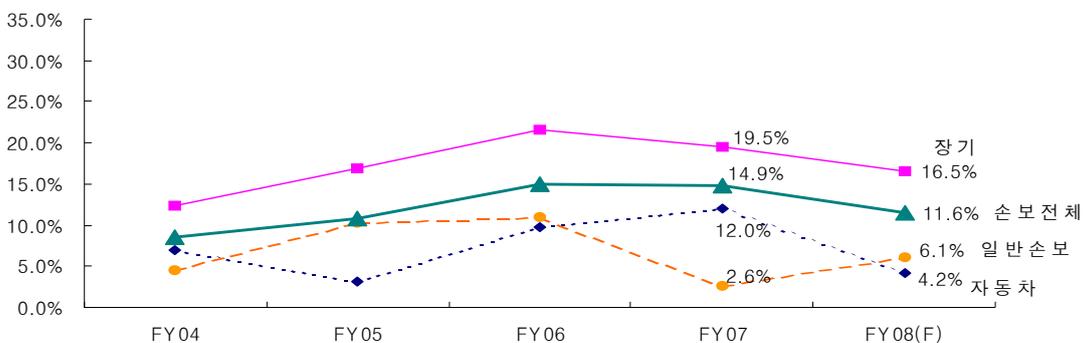
<그림 12>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3. 손해보험

- FY2007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14.9% 성장률을 기록
- FY2008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퇴직연금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둔화 및 일반손해보험의 부진에 따라 전체 성장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11.6%로 전망
 - 장기손해보험은 작년의 고성장에 따른 기술적 요인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매력도 감소로 성장 폭 둔화 전망
 - 장기보험 전체 초회보험료 성장률 : FY2006(24.2%) → FY2007(3.2%)
 - 저축성장기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 : FY2006(39.5%) → FY2007(-7.1%)
 - 자동차보험은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감소와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원수보험료 감소, 온라인 자보의 성장으로 인한 가격경쟁 격화로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
 - 일반손해보험은 기업투자 감소,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

<그림 13>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및 전망



주 :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연금, 퇴직보험(연금)을 포함함.

<표 5> FY200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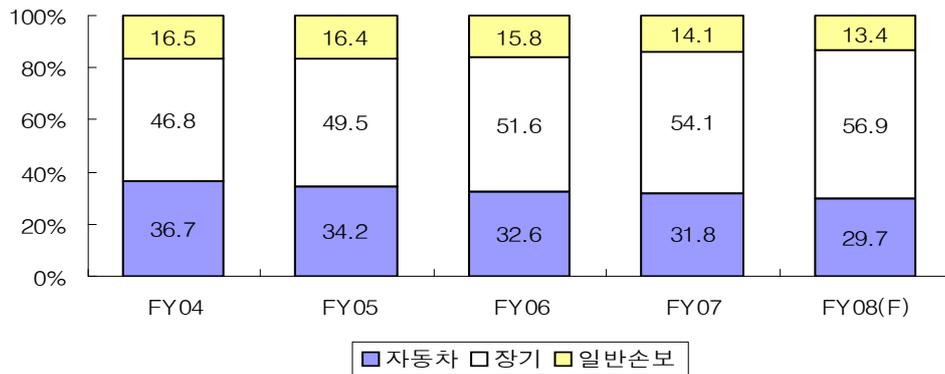
종 목	FY2006		FY2007		FY2008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화 재	3,132	-3.4	3,075	-1.8(-1.0)	3,044	-1.0(-1.3)
해 상	6,324	19.8	6,518	3.1(-1.6)	6,681	2.5(2.6)
자동차	96,492	9.8	108,095	12.0(11.4)	112,634	4.2(4.4)
보 증	11,427	13.5	9,940	-13.0(-12.6)	10,416	4.8(4.8)
특 중	25,810	9.8	28,371	9.0(11.6)	30,670	8.1(9.8)
장 기	136,802	21.5	163,436	19.5(19.8)	190,402	16.5(17.7)
개 인	7,975	14.3	9,995	25.3(23.9)	11,054	10.6(12.8)
퇴직보험	6,542	-15.0	8,258	26.2(-5.8)	10,347	25.3(-3.1)
퇴직연금	1,325	-	2,133	61.0(-)	3,903	83.0(-)
합 계	295,829	15.0	339,818	14.9(13.9)	379,151	11.6(11.4)

주 : 1) ()안은 2007년 11월 현재 보험연구원의 추정·전망치임.

2)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, 권원보험이 포함됨.

3) 기존에는 퇴직보험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전망하였으나 금번 수정전망부터 이를 분리하여 전망함.

<그림 14> 손해보험 종목별 시장점유율 추이



주 :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연금, 퇴직보험(연금)을 포함함

<종목별 성장률>

□ 자동차보험

○ FY2007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 감소 및 직판시

장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, 손해율 악화로 인한 잇단 보험료 인상 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12.0%의 성장률을 기록

- FY2007 자동차보험의 온라인채널 판매 비중은 17.3%로 비중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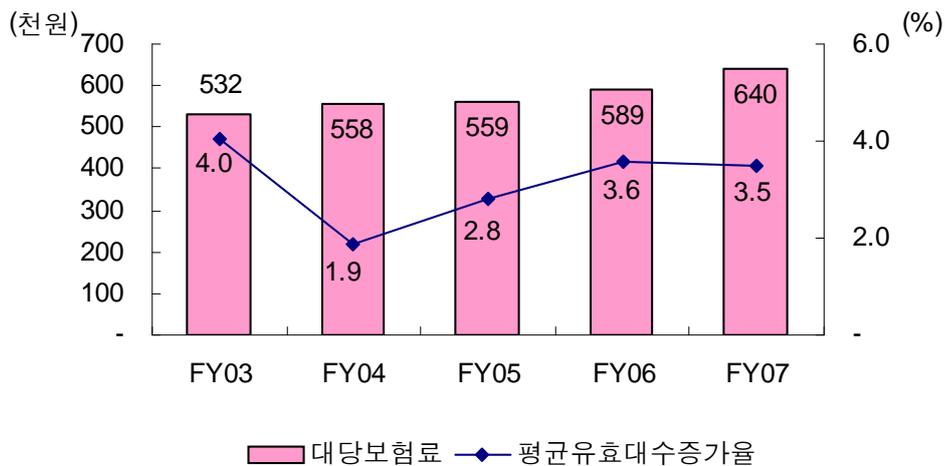
<표 6>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및 자동차보험 온라인비중 추이

구 분	FY2003	FY2004	FY2005	FY2006	FY2007
등록대수 증가율	3.3%	2.4%	3.4%	3.4%	3.0%
온라인 비중	5.7%	8.8%	10.3%	13.4%	17.3%

자료 : 보험개발원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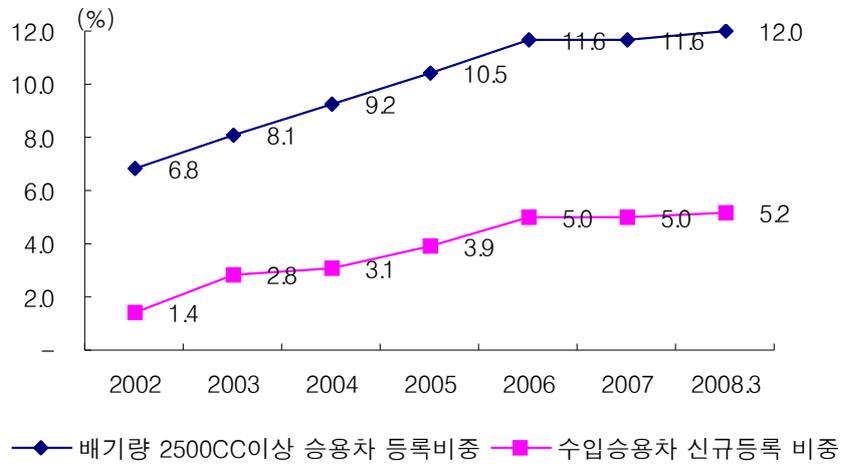
○ FY2008 자동차보험은 대형차·수입차 등 고급차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감소와 보험료 인상효과 소진으로 저성장이 예상됨.

<그림 15> 자동차보험 대당보험료 및 평균유효대수증가율 추이



주 : 대당보험료는 원수보험료/평균유효대수로 운전자보험과 외화표시보험 실적은 제외함.
 자료 : 보험개발원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16> 대형승용차 및 수입승용차의 등록비중 추이



자료 : 건설교통부, 자동차등록현황

-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손해율은 개선될 전망이나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압력이 거세지고, 온라인 직판사들의 가격경쟁이 다시 격화되어 자동차보험은 4.2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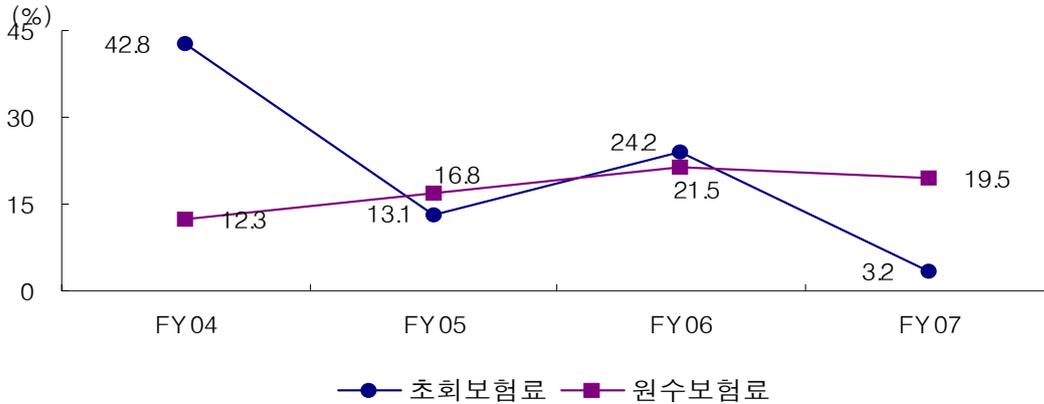
□ 장기손해보험

- FY2007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세와 상해 및 저축성 부분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대비 19.5%의 고성장을 지속

<표 7> FY2007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

구분	원수보험료 기준	초회보험료 기준
장기보험계	19.5%	3.2%
- 상해	24.8%	20.7%
- 운전자	2.9%	0.7%
- 재물	3.8%	13.6%
- 질병	10.3%	52.3%
- 저축성	21.9%	-7.1%
- 통합형	50.0%	-16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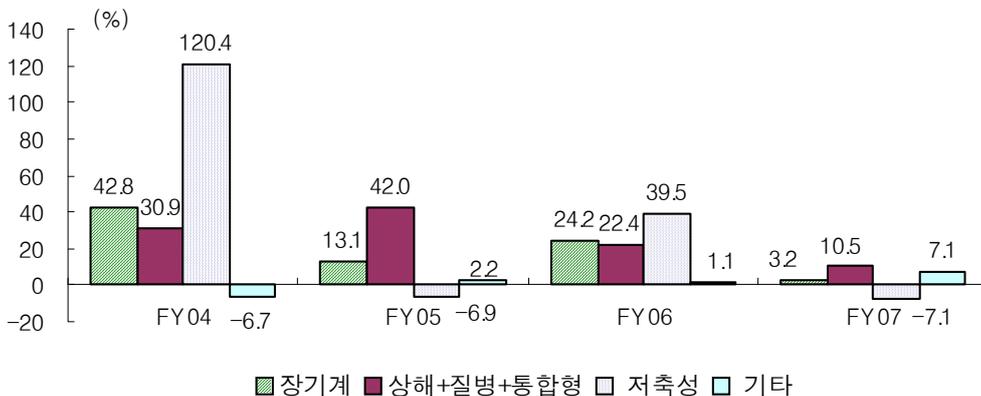
<그림 17> 장기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료 성장 추이



○ FY2008에도 장기손해보험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상해 및 질병부문에 대한 중점보장 상품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,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보다 수익성에 치중한 경영전략 추진으로 전년대비 성장 폭이 감소한 16.5%의 성장률을 전망

-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원수보험료 대비 현저히 밀도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세가 꺾이고 있으나,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원수보험료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
- 또한 최근 대형사를 위주로 불량손해율 담보 관련 경험위험률을 상향 산출하는 등 언더라이팅 강화와 함께 적극적 수익관리에 나서며 내실위주의 경영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성장 폭 감소의 한 요인

<그림 18>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초회보험료 성장 추이



□ 일반손해보험

○ FY2007 일반손해보험은 특종 및 해상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및 화재보험에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2.6%의 미미한 성장을 시현

○ 반면, FY2008에는 상해보험 중심의 특종보험 성장 및 보증보험의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6.1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-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해·질병·장기 건강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어 장기보험 및 상해보험시장 확대에 일조

○ 화재보험

- FY2008 화재보험은 일반물건의 보험료 인하, 민간부문의 투자부진 및 건설경기 침체 등 부정적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(-1.0%)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

○ 해상보험

- FY2008 해상보험은 조선건조량 사상최대 기록 예상 및 고가선박 증가 추세로 인한 선박보험 중심의 소폭 성장이 예상되나, 적화보험의 보험료 인하 및 수출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2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○ 특종보험

- FY2008 특종보험은 공공부문 건설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, 상해보험의 고성장 기조와 종합보험의 보험료 인상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8.1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- 상해보험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기업의 대북진출로 인한 단체 상해보험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

- 기술보험은 공공부문 건설 증가세 하락과 민간부문의 위축세 지속,

보험료 인하 효과가 병행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

- 책임보험은 지난해 실화책임법 적용중지 선고에 따른 배상책임 보상범위 확대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증대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 등 유사보험의 역할 확대로 성장 폭은 낮을 것으로 예상

○ 보증보험

- FY2008 보증보험은 모기지 신용보험(MCI) 등의 신용보험보험영역의 감소세와 건설투자 침체로 인한 이행보증 등의 보증보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보증사의 해외진출 및 ABS보증보험 판매 등 사업 확대 의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회복(4.8%)할 것으로 전망

□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

- 퇴직보험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손비인정비율 축소로 대기업그룹 계열 보험사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6.2% 고성장을 보임.
- 2005년 12월부터 판매된 퇴직연금은 FY2007 전년대비 61.0%로 고성장 하였으며, FY2008에도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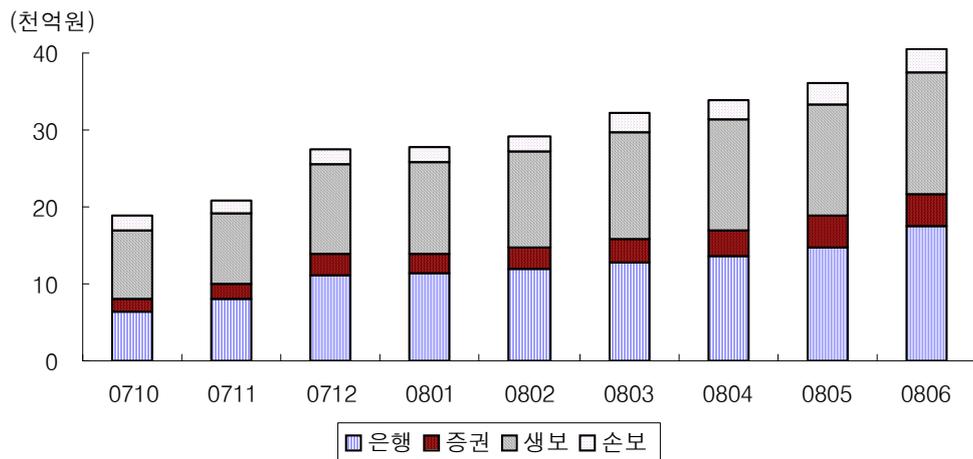
퇴직보험·연금시장 전망

-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조치로 2007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비율이 기존 40%에서 35%로 축소(2009년부터는 30%로 축소)되고 2011년부터 기존 퇴직보험 신탁에 대한 손비인정제도가 폐지될 예정

- 2008년 5월말 기준 국내 5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7.1% 정도에 불과하나, 일부 대형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보험 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.
- 그러나 노사합의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퇴직연금 가입 대신 기존에 가입 중인 퇴직보험의 가입비율을 높여 보험료를 추가 불입함으로써 일시적인 절세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 2010년 까지 퇴직보험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8년 6월 현재 4조 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.0% 증가하였으며, 이 중 생명보험의 비중은 38.8%, 손해보험의 비중은 7.3%를 차지하고 있음.

<그림 19>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



자료 : 금감원

IV. 시사점

- 2008년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은 경기진작보다는 물가안정에 목표를 둘 것으로 보여 시중의 초과유동성 조절, 금리 상승 및 원/달러 환율 안정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- 물가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유동성조절 및 금리상승은 가계의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,
- 한편으로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보험의 신계약 감소와 해약률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 시중의 초과유동성 조절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보험사의 자산운용전략이 필요함.
- 한편, 글로벌 증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하향 수렴화를 못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전년도까지 성장세를 누려온 변액보험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FY2008 생명보험시장은 종신보험 위주의 사망보장에서 변액보험 위주의 자산관리로 주력상품이 계속 이동함과 동시에 연금보험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며, 손해보험시장에서는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을 중심으로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성장 지속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.
- 특히 2008년에는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 확대가 예상되나,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 간

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.

- FY2008년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신규수요 축소 및 유지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리스크가 적은 주력상품을 개발해야 함.
- 변액보험영역에서는 인덱스펀드와 주가지수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주가지수에 연동시켜 변액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 인덱스변액보험이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됨.
-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의료비실손보험을 중심으로 각종 정액형 특약이나 자동차보험, 배상책임보험 등을 부가한 통합보험 위주의 상품전략을 유지하여야 하며, 손해율 개선에 따라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지나친 가격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CEO Report 2008- 03

FY2008 수입보험료 전망

발행일	2008년 8월 일
발행인	나 동 민
발행처	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인쇄소	(주)유성사 대표전화 2268 - 0676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
(☎368-4422)로 하여 주십시오.